

민주 '反 정세균 연합' 출범... 갈등 격화

비주류 '쇄신연대' 발족... 본격 세몰이 나서 주류측 "재·보선 힘모을 때 흔들기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비주류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反) 정세균 대표'를 기치로 한 비주류 연합체 성격의 '민주회맹쇄신연대(이하 쇄신연대)'를 공식 출범시킴에 따라 민주당의 '한 지붕 두 가족'이 현실화했다.

4일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측과 대립해왔던 민주당 원내외 비주류 인사들과 당원 5000여명은 광주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쇄신연대' 출범식을 갖고 세몰이에 나섰다.

특히, 쇄신연대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각 권역별 '당원행동대회'를 열어 전국 조직화에 나서는 등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 측을 최대한 압박할 계획이다.

쇄신연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그 동안 민주당 내부의 소통은 단절됐고, 당내 민주주의는 몰살됐다"며 "지난 2년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쇄신연대는 이어 "민주당을 국민에게, 당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전면적 쇄신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 확립 ▲민생정책의 개발과 실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면적 시스템 개편 등을 결의했다.

특히, 쇄신연대는 정동영, 박주선, 천정배, 추미애, 이강래, 강봉균, 신건, 김성순 의원과 정대철, 정균환 전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상임고문을 맡고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60여명의 집행위원단을 구성한데 이어 대변인까지 두는 등 사실상 지도부 체제를

맞춤에 따라 민주당의 '한 지붕 두 가족' 현상이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다.

쇄신연대 측은 공정한 '전당대회'를 마련 등을 위한 당내 혁신기구의 즉각적 구성과 7·28 재보선 후 지도부 사퇴 등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제시했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당내 서명운동을 비롯, '비상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박주선, 천정배, 추미애, 김영진 의원과 정대철, 정균환 전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이 4일 오후 서울 어린이대공원 돌미트홀에서 '민주회맹쇄신연대' 출범식을 열고 있다.

있다.

이와 관련, 비주류 강경과 일각에선 차기 전당대회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쇄신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는 당 지도부를 일거위기 위해 쇄신연대가 탄생했다"며 "결함한 태도로 자성하고 분발하며 국민과 함께할 때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며 쇄신연대 창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 대표 등 주류 측은 "지금은 재보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맞서고 있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우상호 대변인은 "7·28 재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 측 핵심인사는 "일부 당내의 인사들이 재보선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당권 경쟁에만 집착, 무책임하게 정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영진, 주승용, 유운근, 김재균 의원 등 5명이 쇄신연대에 참여했다. 또한, 중립 성향의 일부 지역 의원들도 비공식적으로 쇄신연대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세형 전 고문 추모문집 발간

자서전·평전·유고집

고(故) 조세형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기리는 추모문집이 발간됐다.

조세형 기념사업회(회장 정진길 전 의원)가 고인의 1주기를 맞아 최근 내놓은 이 추모문집은 조 전 상임고문의 자전기록인 자서전과 지인들의 평가와 회고를 담은 평전, 각종 지면에 발표된 기고문·연설문을 모은 유고집 등 3권으로 돼 있다. '시대를 앞서 산 80년'이란 제목의 평전에는 박관상·조용중·권오기·최일남·남재희·김영희·김진배 등 전·현직 언론인과 정대철·정세균·김근태·정동영·박지원·조흥규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글이 담겨있다.

평전은 지인들이 조 전 고문의 언론인 시기와 정치인 시기로 나눠 신문 현대화 운동과 해외취재·국제보도의 새 지평을 연 과정과, 정치입문과 원내활동 전반기, 정치가로서의 활동 등을 회고했다.

유고집 '양비론의 포로, 언제 면할 것인가'는 언론·정치·국제관계 등에 대한 조 전 고문의 글을 묶었고, 자서전 '그때 조 세상은 전진한다'는 그가 2004년 초 주일대사를 맡으며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후 집필한 책이다.



전북 김제시 금산 출신인 그는 평화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딘 뒤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활동했고, 1956년 중견 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창설을 주도하는 등 언론 현대화에 기여한 언론인이며, 학구파 논객이었다.

'독립신문' 창간일을 기념해 4월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한 것도 그다.

1979년 10대 총선 때 신민당 공천을 받아 서울 성북에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평전에 글을 남긴 지인들은 한결같이 조 전 고문의 여유로움과 탁월한 유머 감각을 추억했다.

한편, 조세형 선생 기념사업회장은 정진길 전 의원을 맡고 있으며, 김상현·김원기·박만용·정대철·정동영·정세균·조창현씨가 고문을 맡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오늘 남구 보선 후보공천 집중 논의

민주당 광주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적으로 광주 시민의 여론, 예비 주자들의 역량, 당 기여도 등을 놓고 후보 선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인 유력 주자들에게 지역 여론 청취는 물론 기본적인 ARS 여론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심층 여론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5일 오후 최고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 이르면 7일에는 후보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후보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구 후보 공천은 광주 시민의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예비 주자들의 역량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주선 최고위원은 "일부 인사의 경우, 역량은 충분하나 당 기여도가 약하고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는 지역 여론 및 역량에서 2%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5일 최고위원회에서 광주 남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으로 논의를 시작, 이르면 7일에는 후보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후보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구 후보 공천은 광주 시민의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예비 주자들의 역량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주선 최고위원은 "일부 인사의 경우, 역량은 충분하나 당 기여도가 약하고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는 지역 여론 및 역량에서 2%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5일 최고위원회에서 광주 남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누구

내일 선거... 의장 후보 윤봉근·강은미, 부의장 후보 이은방·정현애·정병문 등록

제6대 광주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교육의원들 사이에 원구성을 둘러싼 물밑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장 후보 2명, 부의장 후보 3명이 등록을 마쳤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반기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의장 후보에 민주당 윤봉근 의원(광산 1), 민주노동당 강은미 의원(서구 4) 등 2명이 등록했다.

또 부의장 후보에 민주당 이은방(북구 6)·정현애(비례)·정병문 의원(비례)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6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 이태표가 없는 한 윤봉근 의원이 초선의원 사상 처음으로 전반기 의장에 오를 전망이다.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선거에는 민주당 의원 3명이 등록을 함에 따라 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사실상 시의회 내 '주류'로 떠오른 일부 진보성향 초선 의원들은 전반기 부의장에 정현애·이은방 의원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 민주당 의장 후보 선거에서 윤봉근 의원을 지지한데 대한 '보은(?)' 성격이 짙으며, 이 의원은 '비주류' 측에 대

한 배려라는 게 주류의 관측이다.

그러나 비주류 측에서는 정 의원의 경우 제4대 의회 때 비례대표로 부의장을 역임한 데다 당시 민주당을 비난하고 탈당한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광주시의회 후보인 민주당 윤봉근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은미 의원은 광주시의회 접견실에서 만나 향후 의회 운영과 원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오는 6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당의 입장

을 전달하고 개인적인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의원 4명도 별도의 모임을 열어 교섭단체 구성과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비(非) 민주당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교육의원들과의 연대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의원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의원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민노당과의 연대 방안에 대해 입장을 조율 중이다. 다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들 몫으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만은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2명과 교육의원 4명이 연대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의장단 선거와 향후 의사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野 4대강 반대 장의투쟁

서울광장서 범국민대회

야권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의 집회를 여는 등 4대강 사업 반대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대표자 연석회의'는 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김진표·김민석·장상·윤덕홍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김효석·김유정 의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 등 야당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와 함께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은태 광주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과 수도권 등에서 당선된 야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함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공무원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세요!

특별이벤트 (수강료 50% 할인)

특별이벤트2 (수강료 30% 할인)

개강 7월 1일

PEET/ MEET/ DEET

의사학이 되는 학생만 선별

의대대학 의석대학 의외대학

최종예상 문제풀이 기초이론만 토익/토플

개강 7월 5일

서울고시학원

1514-4530
seoul.go.kr

서울정철전문학원

seouljungcheol.com
1514-7271

MDPass 의학원

1514-253-6453
mdpass.co.kr